

세계인 즐길 공연·전시·거리축제...문화광주 위상 알린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손님맞이 준비 박차

조직위, 입장권 판매·후원 기업 모집 등 대회 마케팅에 총력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억, 2만 4000명 신규 고용창출 전망

광주시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 문화·예술·관광 이벤트를, 프로그램, 사업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는 달리 비용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등도 함께 구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티켓 판매, 후원사 모집 등 대회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 생산 등 대회의 경제유발효과가 지역 곳곳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대회 기간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집중 배치=시는 우선 대회기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운영해 수영대회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광주의 거리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9 ACC 광주프린지인태너셔널'을 통해 해외팀을 초청, 거리극과 공중 퍼포먼스 등도 함께 선보인다. 공동 예술의 거리 및 대인 예술 야시장에서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을, 주요 공연장과 선수촌·경기장 인근·근남로 등에서는 시, 자치구, 광주문화재단, 민간공연단체 등이 17건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행사 등을 집중해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선수단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5개 경기장별로 경기 전 1-2시간이 소요되는 소공연을 열어 경기 붐을 조성하고 및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과 대회 선수촌에서는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경기장 주변에는 문화·관광 공예기념품 전시·홍보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티투어버스 확대 및 인근 관광지 연계 ▲광주 관광안내소 특별 운영 ▲광주 외국인 홈페이지 운영 ▲다른 체육행사 및 이벤트 동시 개최 등도 준비중이다. ◇조직위는 기업 후원, 입장권 판매 총력=조직위는 FINA 후원사인 니콘, 야쿠르트, 아레나, 밀싸폴, 오메가, 삼성 등 9개사를 제외한 국내스폰서, 국내서플라이, 국내서포터 등 후원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국내스폰서는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 에너지, 교통, 인터넷포털 그리고 국내서플라이어는 생수, 은행, 케이터링, 가구, 게임, 보안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서포터는 숙박, 백화점(마트), 보험, 물류, 정장류, 맥주, 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참여 기업 및 지역에 연고를 둔 대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회 물자 관련 분야는 후원 경쟁 모

집을 통해 후원금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및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참여도 바라고 있다. 현재 중흥건설(후원등급 1등급)의 부대시설 공사(현물)에 대한 계약 및 협약식이 예정돼 있고, 세방여행(3등급) 현금 및 현물 계약이 완료됐다. KT(1등급)는 현금 및 현물 관련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해진 상태다. 정장, 티켓, 가구, 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업 후원 경쟁 모집 공고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대상은 개 폐쇄식, 6개 종목 76개 세션의 59만5000석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41만 9000매를 발행해 37만매를 판매하겠다는 것이 조직위의 목표다. 국내에서 80%(30만매)를, 해외에서 20%(6만9000매)를 소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온라인, 3월부터 오프라인 판매에 나선다.

◇생산유발 효과 광주 1조4000억원 등 전국 2조4000억원=직전 대회인 지난해 하계거리 부다페스트대회에는 177개국 선수 2303명, 임원 1912명, 수영대회연맹 관계자 1279명과 1611개 미디어와 방송 등이 참여했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즈대회 등록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고 대회 기간 48만 명의 관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대회를 중계했고, TV 누적 시청자만 5억10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로서는 최대규모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거 뒤들이는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수영경기가 열렸던 남부대학교 수영경기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 1만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회 기간

전 세계 수억 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명이 언론을 통해 대회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국제대회 개최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의 콘텐츠를 문화와 스포

츠를 결합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전세계에 소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선수단 참가와 남북단일 선수단 참가도 거론되고 있어 이번 대회가 남북을 한층 가깝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대북·신북방정책 뒷받침” 송영길 의원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8일 “문재인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8·25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4면>

호남 출신 4선의 송 의원은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자제로 당의 대표가 돼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후화된 당 대표 권한을 중앙위원회와 당원들에게 돌려겠다”며 “각종 선거에서 공천기준을 미리 결정해 당 대표가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년 전 당대표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점을 감안, 당 혁신을 위해 그동안 정치부시 준비해 온 공약들은 오는 26일 컷오프 이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북방·남방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국민 48%의 집 없는 현실에 가정의 보충금 조달 금리를 50% 절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 핀테크로 이를 실현시키겠다”며 “주택을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포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청관계에 대해 그는 기자회견과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 당청관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진단한 뒤 “내가,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협력력을 통해 각종 국정현안을 풀어가는데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개각 폭·시기 막바지 고심 靑 비서진 개편도 임박

문재인 정부 271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이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우선 비서진 조직개편은 늦어도 다음 주 초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 늦어지더라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각 역시 이번 달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교체 대상 부처를 3-4곳으로 압축한 가운데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으며 최종 결심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17-18일 외부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것을 이와 연관 지어 보는 견해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개각이 임박했다”라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떻게 앞날을 알 수 있겠나”라며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각 이전에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전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단행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른다”라고 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 분야에서 복잡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의 결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후보군인 사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개각 시기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 휴가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개각 폭도 미지수다. 일단, 공석이 된 농업축산식품부를 채우는 것 외에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에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고자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도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애초 예상한 1-2명이 아니라 3-5명 선의 ‘중폭’이 되리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30%’ 공약도 청와대가 개각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므로 여의도 정가에선 일부 여성위원의 입각 전망도 급부상 중이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업무조정비서관 신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 가능성 등 다양한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정책처방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 등을 비롯해 여러 아이디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 11 회 장항도초제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우수축제

장항도초제

2018. 7. 27.(금)~8. 2.(목) /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개막식 : 7월 27일 (금) 오후 8시
- 살수(洒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8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7일 (금) ~ 8월 2일 (목) 오후 2시
- 맨손 물고기 잡기 : 7월 28일 (토) ~ 8월 2일 (목) 오후 3시
- 정홍 워터락 파티
 - 7월 27일 / 로꼬, 다이내믹듀오, DJ 소다, DJ 듀유
 - 7월 28일 / DJ 윈투, DJ 허조코
 - 7월 29일 / DJ 손차, DJ miss K

제46회 강진 청장초제

문화관광축제

강진 청장초제

2018. 7. 28. - 8. 3.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개막퍼포먼스 : 2018. 7. 28.(토) 오후 7시

□ 기획행사 : 흙을 밟고·던지고·적시고(투게더 점핑 소일), 전국 물레성형경진대회 등
□ 전시행사 : 전국 도자 전시 및 판매, 제18회 고려청자 특별전, 조선민화 특별전 등
□ 체험행사 : 불림공 청자 깨뜨리기, 물 풍선터뜨려 청자 가져가기, 초대형 워터 슬라이딩
□ 공연행사 : 광주KBC개막 축하쇼, 나이트 팝 페스티벌, 한여름밤의 EDM 공연 등